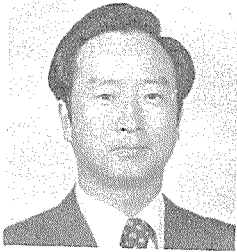


(業体名 가나다順 계제)



## 電子工業의 새로운 跳躍을 위한 決意

辛 國 煥 / 商工部 電子電機工業局長

### □ 電子工業이 雄飛하는 해

電子工業 行정을 담당한 지 3年째가 되는 필자에게 새해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 電子企業이 世界로 크게 뻗어 나아가고 電子工業人 모두가 새로운 큰 成就를 하는 것이다.

1984년이야말로 우리나라 電子工業이 그 면모를 일신하고 電子工業史에 획기적 里程碑를 설정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는 20여년의 電子工業 歷史를 가지고 있다. 강산이 두번이나 바뀔 수 있는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한해를 決算하고 새해를 設計하는 일을 거듭하여 왔었다.

企業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제품을 開發하고 世界市場에 더욱 넓고 깊게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노력하여 왔고 政府는 企業의 이러한 노력을 어떻게 하면 더욱 북돋우어 주고 활기차게 할 수 있을지를 제도와 지원면에서의 방안을 모색하려고 힘써 왔다.

이렇게 해를 거듭하면서 電子工業은 生産·技術·輸出 等 거의 모든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의 産業史를 기록해 왔었다.

그러나 최근 數年間은 世界的인 불황이 지나가는 過程에서 많은 企業이 倒産하고 海外 바 이어는 이탈했으며 部品 生産 中小企業이 시들어간 고통의 章도 있었다. 지난해에 들어 電子工業은 다시 새로운 환경과 기회를 맞이하였다. 電子工業의 生産과 輸出이 급격히 회복상승되고 生産設備과 일손이 달리고 部品를 구하기 힘든 한해였다.

또한 새로운 企業이 나타나서 방대한 投資와

研究開發에 착수하였고 尖端技術을 확보하기 위한 基地를 海外에 새로이 構築하기도 하였다. IBM과 GE 等 海外 有名企業이 購買事務所를 설치하여 機器와 部品를 사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活氣야말로 우리나라 電子工業을 盤石위에 올려 놓을 수 있는 千載一遇의 기회라 하겠으며 新年에 펼치는 企業의 설계와 政府의 계획은 그 어느때보다도 의욕이 넘치고 희망찬 것이어야 하겠다.

### □ 電子工業에 對한 認識과 眼目이 새로와져야 하는 해

電子工業이 획기적으로 跳躍하기 위해서는 電子工業人의 마음가짐과 생각도 그에 맞게 가다듬어져야 하겠다.

새해에는 우선, 電子工業에 대한 인식이 새로와지고 眼目도 달라져야 하겠다.

지난해까지를 결산하는 의미에서도 우리들이 電子工業을 發展시켜오는 過程에서 어떤 면이 미흡하였는지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겠다. 電子工業 部門에서 새로운 事業을 전개하거나 製品을 생산하려면 으레히 外國의 技術, 그것도 組立 生産技術을 導入하고 部品를 그대로 들여와서 國內市場을 겨냥하여 機器를 만들곤 했다.

一部 企業들은 國內市場에서 누가 더 큰 몫을 차지하느냐는 販賣競爭에 주력하고 余力로 輸出을 하는 等 海外進出에 소극적이기도 하였다.

獨自의 研究開發에 자신이 없거나 의욕이 부족하여 研究開發 투자와 高級頭腦人力 高熟練

技術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덜한 感도 없지 않았다. 都給 系列 中小企業에 맡기면 部品의 품질과 납기를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예도 많았다. 新技術과 새로운 製品에 도전하여 世界市場을 지배하고 높은 附加價値를 내겠다는 패기도 약했다고 할 수 있다.

새해에 우리 電子工業이 世界的인 産業으로 발전하자면 이 분야에서 일하는 이들이 적어도 다음 몇가지에 대해서는 이해와 생각을 같이 해야 하리라 믿는다.

첫째, 電子工業人은 國內市場과 海外市場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되겠다. 世界市場이 곧 우리의 市場이며 國內市場은 世界市場의 一部로 개방되어 있다고 보고 事業計劃을 세우고 경영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電子工業에 대한 보호는 극히 한정적이고 앞으로 몇 년 안에 개방될 처지에 있다. 지난날처럼 國內市場 보호를 전제로 사업을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쟁에 뒤지게 될 것이다.

둘째로 새로운 경쟁 의식과 질서를 다져야 하겠다. 電子工業은 그 어느 産業보다도 技術變化가 빠르고 새로운 제품의 出現과 斜陽化가 심한 部門이다. 家電製品 몇개를 놓고 國內市場에서 販賣競爭을 지나치게 한다는 것은 이러한 電子工業의 생태를 외면한 短期的 안목에 지나지 않는다. 새해부터는 좁은 國內市場에서 벗어나 광활한 世界市場에서 제품과 기술 경쟁을 해야겠다는 결의와 계획이 있어야 하겠다.

세째, 우리 電子工業人도 尖端技術産業人으로서 의연한 자세를 확립하는 한해가 되어야 하겠다. 世界는 電子技術을 중심으로 제3차 産業革命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先進祖國 창조를 위한 産業의 고도화가 그 과제로 되어 있다. 우리는 70년대에 건설한 「하드웨어」 産業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의 시스템産業 즉, 電子産業 中心으로 발전해 나가야 先進産業社會는 물론 새로운 産業革命에 同參할 수 있게 된다.

이 當面 課題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오로지 電子의 技術力이다.

새해에는 큰 企業, 작은 企業 할 것 없이 研究開發 부서를 대폭 확충하여 독자적 電子技術 체계를 확립하는 轉期를 마련해야 되겠다.

네째, 서로 뭉치고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결의와 産業環境을 조성하는 것이다. 경쟁을 하다 보면 企業間은 물론 그 속에서 일하는 經營人, 技術人끼리도 서로 멀어지기가 쉽다.

電子工業은 素材, 部品, 組立間에 迂回度가 높은 産業이며, 이러한 産業에 있어서의 競爭力은 關聯企業과 사람이 一體感으로 뭉치고 협력하는 데에서 솟아날 수 있다. 組立企業과 部品, 素材企業間의 완벽한 系列 協力體制가 다져지고 同業人間에는 공동 協力開發 風土가 조성되는 한해가 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몇 가지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생각을 가다듬고 자세를 바르게 하여 새해의 실적을 하였을 때 우리 電子工業의 飛躍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새해의 우리 電子工業은 양적으로 확대되고 그 內容面에서도 先進化되는 커다란 轉期를 맞게 될 것이 틀림이 없으므로 우리 모두가 이를 위한 결의와 각오를 새롭게 하여야겠다.

## □ 電子工業 總力 成長 發展의 해

우리의 電子工業이 跳躍의 轉期를 맞이할 대망의 새해를 바라보며 정부가 기대하는 電子工業像과 新年의 실적을 간추려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1984年을 우리나라 産業史에 새로운 章을 남길 尖端技術 産業 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삼고자 한다.

새해에는 미래의 電子技術을 기념하는 半導體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超大規模 集積回路 生産設備 투자를 마무리하여 생산 및 수출에 들어갈 것이며 電子機器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半導體의 自給基盤을 다질 것이다.

通信機 分野의 尖端技術인 時分割 電子交換機와 光通信 시스템 部門에 있어 先進技術 導入에 의한 개발과 자체 研究開發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컴퓨터 産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시스템 産業으로 종합적인 開發計劃을 추진할 것이며 개인용 컴퓨터와 周邊機器의 수출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

그밖에 事務自動化 機器와 새로운 家庭映像 機器 等 世界的으로 개발 추진되고 있는 新技術 製品의 국산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둘째, 電子産業의 開發能力을 대폭 확대하여 國際化하는 것이다.

電子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각종 機器를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綜合 電子企業數를 倍加하여 金星, 三星, 大宇, 現代의 4社로 하여금 生産設備과 研究開發 규모를 國際化하는 것이다.

重化學工業, 투자의 試行錯誤에서 綜合 電子企業의 확대를 우려하는 견해도 있으나 電子工業의 본질과 인식을 올바르게 가지고 産業의 競爭力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보면 수궁과 이해가 되어질 것으로 믿는다.

電子工業 長期 高度化 계획에서 밝혔듯이 우리나라가 가진 자원을 最適으로 활용할 수 있는 産業이 곧 電子工業이고 이 産業에 경제적 생존을 걸지 않을 수 없다면 電子産業의 競爭力 확대는 숙명적인 과제로 받아 들여져야 할 것이다.

세째, 電子部品과 素材를 획기적으로 개발하여 國際 部品 供給基地를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電子工業은 部品과 素材面에서 많은 취약 요소를 가지고 있다.

電子工業의 國際競爭力이 튼튼해지려면 部品の 조달이 원활하고 완벽한 계열화 체제와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 能力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部品은 國際競爭 有望 部品과 脆弱 部品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투자와 개발 계획이 추진되어

져야할 것이다.

네째, 電子技術의 研究開發과 新製品 生産技術을 강화하는 것이다.

電子部門에 기초적으로 정립해야 할 技術과 새로운 製品開發 技術에 대하여 共同化, 協同化를 통하여 先進技術導入과 研究開發을 조화시킨 짜임새가 있는 세부계획으로 개발토록 할 것이다.

특히 半導體, 컴퓨터 等 主要 部門에 대해서는 능력있는 企業으로 하여금 「벤처비즈니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여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研究開發을 위한 人力養成과 支援制度도 새로운 차원에서 그 대책이 강구될 것이다 다섯째, 우리 電子工業의 영역과 활동범위를 世界市場으로 보다 廣域化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電子工業振興會의 機能과 業務推進이 補強되고 활성화 되도록 할 것이며 企業間의 주요 부문별 協議 機能도 대폭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主要國과의 電子工業界間 相互交流 및 協力 事業도 더욱 활기있게 추진되도록 할 것이다.

電子工業은 다른 어느 産業보다도 정부의 관여는 줄이고 企業의 창의를 최대한 保障해 주고 있다.

最近 推進中에 있는 投資와 研究開發이 창조적 企業家精神에 입각하여 計劃된 電子工業의 國際化 事業인만큼 政府는 그 여건을 조성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電子工業 行정을 責任지는 商工部의 電子電機工業局 全職員도 새해의 決意와 자세를 확고히 하여 1984년이 電子工業史에 보람찬 跳躍의 결실을 거두는 데 밀거름이 되고자 한다.

